

Effects of Group Piano Playing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Self-Efficacy; A Case Study

Woo, Hyu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 piano playing program, which was a part of psycho-emotional support program,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s self-efficacy. For this case study, five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from "N Multi-culture Supporting Agency" were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group piano playing program was implemented for ten sessions. Each session took place once a week for ten week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participant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were used as a mixed methods research design.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self-efficacy average sco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 < .05$). Also, qualitative analysis of participants' verbal and behavioral response showed positive changes in their level of self-efficac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group piano playing can facilitate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promote the self-efficacy on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Keywords] *Multiculturalism, International Marriage Immigrant Women, Group Piano Playing, Self-Efficacy*

* Ewha Womans University Arts Therapy Education Center Music Therapist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사례 연구

우현정*

본 연구는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N 다문화 지원 기관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5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주 1회 10회기의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함께 사용된 혼합적 연구 방법 설계가 사용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 평균 점수는 비모수 검증 결과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으며, 질적 내용 분석에서도 세션 초기보다 세션 후기에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이 언어적·행동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중재도구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핵심어] 다문화주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자기효능감

* 이화여자대학교 예술치료교육센터 음악치료사 (lovelywoos@hanmail.net)

I. 서론

한국 사회는 세계화·지구화로 인한 국제 이주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에 1990년대에는 한국 내 거주 외국인 수가 4만 9천명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20배 정도 증가한 110만 명 시대를 초래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 2009). 이처럼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한국 사회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급증 현상이다(최운선, 2007).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결혼 비율 중 국제결혼 비율이 13.5%로 사상 최대의 수치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로도 매년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결혼 비율의 10% 이상을 차지하여 왔다. 지난 2009년도에도 10.8%를 기록하였는데, 그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은 10.8% 중 8.1%로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보다 현저히 높음을 보여주었다(통계청, 2010).

한국 사회에서의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안정과 더불어 자기실현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외국인 여성의 욕구와 한국의 사회·경제 상황, 도시·농촌간의 상황, 문화·경제적 여건 상 국내 결혼이 어려우나 독신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한국 남성의 욕구가 부합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장온정, 2007). 이러한 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국제결혼으로 맺어진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결합 이상으로 두 나라의 결합을 의미한다(하 밍 타잉, 2005).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각자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충돌의 요인은 두 사람 개인 간의 차이를 넘어 인종, 서로 다른 사회문화간의 상충에서 빚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최운선, 2007).

특히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은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여기에는 한국 사회로부터 인종적 차별과 편견, 적대감과 소외감 경험(나임순, 2008; 차옥송, 2008),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좌절과 불안, 우울, 무능력함, 외로움, 향수병 경험들을 들 수 있다(김상임, 2004; 김오남, 2006; 김이선, 2006; 문경희, 2006; 박주희, 정진경, 2007; 정기선, 한지은, 2009). 이러한 현상은 또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은데, 이는 위와 같은 부정적 경험들이 미해결된 채 계속 누적되면 작은 실수에도 실패감을 느끼게 하며,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킬 힘이 스스로에게 없다고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 신념을 초래하기 때문이다(Neher, 1991).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이 주어진 상황적 변인을 적절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한국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위축감, 실패감, 우울감, 무능력함 등에서 비롯된 잘못된 부정적 신념으로부터 벗어나 긍정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긍정적 신념 중에서도 자신이 어떤 수행을 성공시킬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신념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라는 개인 내적인 요인과 상관이 높다(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란 Bandura(1977)에 의해 처음 소개된 개념으로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데, 특정한 과제나 영역에 대한 자기의 능력과 관련된 개념으로 인간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념을 일컫는다. 이는 또 다른 표현으로 개인이 인지적 자원들과 주어진 상황적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시작하고 동기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Wood, Bandura, 1989)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라는 주된 네 가지 정보원을 통한 학습경험에서 발전된다(Bandura, 1977). 또한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인구학적 특성, 성격 유형, 통제 신념 및 다른 내적 요인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한 내적 요인이기 때문에 상황 변수의 영향으로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주된 네 가지 정보원을 통한 학습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Bandura, 1977).

이와 같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대상이 될 경우, 음악이 적절한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은 모든 문화에서 언어가 생기기 전부터 존재한 지극히 보편적인 표현 매체로써 (Blaking, 1995), '세계 공용어(universal language)'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조화를 이루게 하며(harmonizer), 위안을 주는(comforter) 기능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Vescelius, 1918).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 넘어 상호교류가 일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대상자들의 공통된 의사소통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 둘째, 음악을 창조하고, 연주하는 그 경험이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병철, 2006). 이는 음악이란 그 음악을 감상하거나 창조, 연주 활동을 하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상태와 상호관련을 맺는다는 데에서 비롯한다(정현주, 2005). 즉, 각 개개인에

계 음악을 통한 창조, 연주, 감상 등의 음악 활동은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을 얻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발전되는 자기효능감이라는 변화를 원하는 개인 내적인 요인을 다룰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매개체로 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돕기 위해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피아노를 활용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또는 교육적 수요 및 요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2007)을 고려하였다. N다문화 지원 기관에 방문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다수가 예술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피아노를 선호하여 끊임없이 지원 요청이 있었다는 기관 담당자의 의뢰를 받아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악기들 중에서도 피아노를 선택하였다. 둘째, 피아노의 기능적인 면과 사회·문화적인 면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치료적 활동에 효과적인 역할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먼저 피아노의 기능적인 면을 살펴보면 피아노는 손가락을 누르기만 해도 쉽게 음을 낼 수 있으면서도 양손가락 모두 사용하여 난이도가 점차 높아지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악기이다(권기택, 김성남, 1990). 자기효능감 개발에 영향을 주는 성취경험은 힘들이지 않고 얻는 성취가 아닌 끈기 있는 노력과 장애물 극복을 통하여 얻게 되는 성취(Bandura, 1977)를 말하는데, 단계별로 구성 가능한 피아노 연주 활동은 대상자들에게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성취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피아노의 사회·문화적인 면을 살펴보면 피아노는 동·서양에 걸쳐 널리 사랑받는 대중적인 악기로 불릴 뿐만 아니라 여성의 교양 있는 이미지를 상징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는 악기이다(민은기, 2000). 선행연구들은 동·서양의 중산층 여성들이 스스로 교양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피아노를 사용하여 왔다는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다(김홍련, 2002; 서우선, 2007). 즉, 피아노 연주 활동은 자기효능감 증진을 필요로 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사회적인 면으로도 촉매제 역할을 하여 치료적 도구로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진행된 피아노 연주 활동이 본 연구에서 집단 활동으로 구성된 이유는 집단 내에서의 악기 연주가 집단 원들 모두에게 음악을 만들어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의 주체자라는 인식을 갖게 해주므로(Moulden, 2007), 사회적으로 좌절, 불안, 소외감, 외로움 그 외의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를 경험하며 집단 내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또한 피아노 연주 활동

내에서 집단 역동의 원리가 이루어진다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된 네 가지 요인들 중 연주수행을 통한 성취경험 뿐만 아니라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에도 더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자기표현, 자기존중, 사회성 증가와 같은 사회·정서적 영역에도 치료적 효과성을 입증 받은 피아노 연주가 중심이 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Cassity, 1981; Kivland, 1986; Zelazny, 2001),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집단 악기 연주 활동이 아동에서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자들에게서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해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도 고려하여 집단 활동으로 구성된 것이다(고민정, 2008; 구새롬, 2007; 김선미, 2004; 양지은, 2007; 주혜운, 2009).

본 연구에서의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은 단계별로 과제 수행을 하게 되므로 교습의 성격을 지니고는 있으나, 음악적 능력 향상과 연주 전문가로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음악 외적인 변화에 목적을 두고 충분한 음악치료 훈련과정을 수료한 치료사에 의해 진행되는 치료적 활동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에서 목적을 두고 있는 음악 외적인 변화는 자기효능감의 증진이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서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을 통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 변화는 언어적·행동적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소재한 민간단체 N 다문화 지원기관에 다니는 국

제결혼 이주여성들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에 지원한 자들 중에서 자기효능감 검사 점수가 51점 이하이며,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5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들은 베트남 여성 1명, 중국 여성 1명, 러시아 권 여성 3명이며, 기초 음악 상식 및 피아노를 처음 접한 자에서부터 아동기 때 잠시 피아노를 배웠으나 현재는 다루지 못하는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초급 단계에 속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의 기본 배경 정보와 자기효능감에 대한 검사점수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표 1>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의 정보

대상자	연령	체류기간	출신 국가	학력	자기효능감 점수
A	31	만 7년	러시아권	고졸	45
B	31	만 5년	러시아권	고졸	49
C	26	만 2년	중국	고졸	47
D	33	만 3년	베트남	고졸	46
E	32	만 7년	러시아권	대졸	38

1) 대상자 A

러시아 권에서 온 대상자 A는 한국에서 만 7년 체류하였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A는 “자신이 국제결혼 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에게 차별과 무시를 많이 받았다”고 하였다. 대상자 A는 오리엔테이션과 1회기를 관찰한 결과, 대상자 A는 활동 참여에서 언행이 성급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이로 인해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대상자 A는 “음악을 한 번도 배워볼 기회가 없었다.”고 하였는데, 계이름에 대해 잘 모르며 악보를 볼 줄 몰랐다. “연주하고 싶은 곡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며, 그 중에서도 ‘징글벨’을 자녀에게 연주해주고 싶다”고 하였다.

2) 대상자 B

러시아 권에서 온 대상자 B는 한국에서 만 5년 체류하였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대상자 B는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았는데, 의상이나 치장한 모습을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다. 대상자 B는 대상자들 중 유일하게 어렸을 적에 피아노를 잠시 배웠었다고 하였는데, 수준

은 초급 수준이었다. 대상자 B는 세션 초기 단계에서 대상자들 중 학습 이해나 연주 수행 진도가 빠른 편이었으며, “연주하고 싶은 곡은 가사가 있는 곡이면 다 좋다”고 말하였다.

3) 대상자 C

중국에서 온 대상자 C는 한국에서 만 2년 체류하였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대상자 C는 자녀를 원하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대상자 C는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을 지원한 이유가 자신도 할 줄 아는 게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하며 남편의 동료들로부터 가난한 나라에서 왔기에 배운 게 없다고 무시 받았다고 하였다. 대상자 C는 집단 내에서 잘 웃고, 상대방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주어 긍정적인 집단 분위기 구성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대상자 C는 “음악과 관련해서는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게이름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연주하고 싶은 곡은 ‘곰 세 마리’ 동요라고 하였고, 이와 유사한 곡들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였다. 나중에 자녀가 생기면 이 곡을 연주해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대상자 D

베트남에서 온 대상자 D는 한국에서 만 3년 체류하였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대상자 D는 대상자들 유일하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대상자 D는 지금은 모국에서도 피아노를 배우는 아동들이 많아졌지만, 자신의 어린 시절에만 해도 피아노를 배울 수 있는 것은 아주 부유한 계층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었다며 배우고 싶었다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 D는 피아노는 어려운 거니까 자신이 연주할 수 있게 된다면 스스로가 멋진 사람이라고 여겨질 거 같다고 하였다. 대상자 D의 음악 학습 수준은 게이름에 대한 개념은 있었으나 악보에 표기된 게이름 또는 리듬들을 볼 줄 모르는 단계였다. 연주하고 싶은 곡은 “자녀와 함께 부르며 연주할 수 있도록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곡이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5) 대상자 E

러시아 권에서 온 대상자 E는 한국에서 만 7년 체류하였으며,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대상자 E는 고향 친구인 대상자 A와의 다른 대상자들과는 눈 맞춤을 잘하지 않았고, 작은 목소리에 말 수도 적어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드물었다. 대

상자들 중에서 부끄러움도 가장 많이 탔으며 학습 이해나 연주 수행 진도도 가장 느렸다. 그러나 관찰된 모습과는 달리 참여 소감을 나눌 때에는 “음악이 너무 좋고, 자신을 빠져들게 만드는 힘을 가졌다며 행복하다”고 표현하였다. 대상자 E의 음악학습 수준은 계이름에 대한 개념은 있었으나, 악보에 표기된 계이름 또는 리듬들을 볼 줄은 모르는 단계였다. 대상자 D는 선율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선호곡이 된 ‘아리랑’을 연주해보고 싶다고 말하였다.

2. 측정도구

1) 자기효능감 척도(SES: Self Efficacy Scale)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herer, Maddux, Mercandate, Prentice-Dunn, Jacob(1982)이 제작하고 홍혜영(1995)이 번안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두 가지 하위요인 중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Efficacy) 17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2, 5, 6, 7, 10, 11, 12, 14, 16, 17) 10문항의 점수는 역 채점된다. 개인별 점수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 사이에 분포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이 척도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 α)는 .86, 각 하위 요인별로는 .68~ .86 으로 나타났고, 김재우(200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Cronbach α)가 .82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및 설계

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Creswell(2003)이 고안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 합쳐진 혼합적 연구방법설계(Mixed Methods Research Designs)이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양적 그리고 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고 분석하는 병렬식 설계(Concurrent Designs)를 채택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참여 대상자들에게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검사설계를 실시하였다. 한편, 질적 연구 방법으로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참여 대상자들의 동의를

받아 10회기 모두 비디오 녹화를 하였고, 매 회기마다 참여 대상자들로부터 프로그램 참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참여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언어적, 행동적 반응들을 상세하게 내용 분석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연구 기간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대상자 선정과 검사지 측정기간 및 분석을 포함하여 2010년 2월 25일부터 2010년 5월 13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다. 2010년 2월 25일 본 연구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지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측정도구(자기효능감 척도)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지원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나, 연구 대상자로는 사전 검사 점수 결과가 51점이하였던 지원자들 중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에 동의를 밝힌 5명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참여 대상자들에게 2010년 3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10주간, 1주에 1회씩 100분(1시간 40분)간 총 10회의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을 총 3단계로, 1단계인 탐색 단계(1-2회기)와 2단계인 중간 단계(3회기~8회기), 3단계의 종결 단계(9~10회기)로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보고서는 매 회기 연구 대상자들로부터 받았으며, 프로그램 종결 후 사전 검사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측정도구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연구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양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은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 점수를 SPSS 16.0 통계 프로그램의 Wilcoxon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질적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매 회기 세션을 녹화한 비디오를 통해 대상자들의 언어적·행동적 반응들을 기록한 문서들과 대상자들이 제출한 참여보고서를 연구자가 규명한 조작적 정의 즉,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네 가지 범주에 따라 내용 분석하였다(<표 2> 참조). 참여보고서는 대상자들의 모국어(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로 작성하여 연구자에게 제출되었으며 연구자는 이를 번역하여 자료화하였는데, 번역 과정에서 어휘의 오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 외국어 전공자이며, 현지에서 2년 이상 거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을 통해 번역하고 내용 확인 과정을 거쳤다.

<표 2> 세션 분석의 네 가지 범주 및 내용

범 주	내 용
▪ 성취경험	창작활동 및 연주 수행 성공적인 완성
▪ 자신감	창작활동 및 연주 수행 자발적 참여 적극적인 자기 의견 발표 및 제안 높은 난이도에 따른 연주 수행 자발적 참여 (난이도 선호) 연주 수행 직면했을 때 적절한 반응 (정서적 각성)
▪ 문제해결능력	연주 수행 도중 실수에 따른 적절한 행동 대처 높은 난이도에 따른 연주 수행 지속적인 참여
▪ 만족감	높은 난이도에 따른 연주 수행 성공적인 완성 집단 내의 긍정적인 언어적 피드백에 따른 반응

5. 집단 피아노 연주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탐색 단계(1~2회기), 중간 단계(3~8회기), 종결 단계(9~10회기)로 구성되었으며 프로그램의 회기별 목표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네 가지 정보원인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을 통해 성취감, 자신감,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만족감을 얻도록 구성되었다(<표 3> 참조).

<표 3> 회기별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 목표

단계	회기	음악적 목표	피아노 연주 활동	치료적 목표
탐색 주	박자와 한리듬 연주 1	· 박자: 4/4 · 리듬: 2, 3, 4분 음표	· 리듬 패턴 만들기 (팀별/개별) · 각자 만든 악보 연주	▪ 창작활동을 통한 흥미, 동기유발 ▪ 창작물 연주를 통한 보상 ▪ 집단 상호교류 경험
	2	· 박자: 2/4, 3/4 · 리듬: 8분 음표	· 리듬 패턴 만들기 (팀별/개별) · 각자 만든 악보 연주	▪ 창작활동과 연주를 통한 보상 및 성취경험 ▪ 집단 상호교류 경험
중간 주	선율 3	· 단음 즉흥 연주 · 선율 연주	· 단음즉흥연주(검은건반) - 치료사와 듀오 연주 · 기존 곡 연주(‘도’- ‘솔’) - 솔로/ 듀오 연주	▪ 새로운 과제 수행을 통한 정서적 각성 ▪ 기존 곡 연주를 통한 성취경험과 대리 경험

양 손 연 주	4	· 선율 연주	· 기존 곡 연주 (‘도’- hi ‘도’) - 솔로/ 듀오 연주	▪ 난이도 있는 연주수행을 통한 과제 해결 능력 및 성취경험과 대리경험	
		5	· 선율 즉흥연주 · 선율 연주	· 기존 곡 연주 (‘도’- hi ‘도’) - 솔로/ 듀오 연주 · 선율즉흥연주(흰 건반) - 치료사와 듀오 연주 - 그룹 원끼리 듀오 연주	▪ 완성도 높은 연주를 통한 성취경험 및 자신감 ▪ 새로운 과제 수행을 통한 정서적 각성 ▪ 언어적 설득을 통한 만족감
	7	화 성	· I도 화성 (전위화성포함) · 왼손 연주방법1	· CM의 기존 곡에 화성 넣기(I도 활용). - 솔로/ 듀오 연주	▪ 난이도 있는 연주수행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및 성취경험과 대리경험 ▪ 언어적 설득을 통한 만족감
			· V도 화성 (전위화성포함) · 왼손 연주방법2	· CM의 I도 활용 곡 연주 · CM의 기존 곡에 화성 넣기(I, V도 활용) - 솔로/ 듀오 연주	▪ 완성도 높은 연주를 통한 성취경험 및 자신감 ▪ 난이도 있는 연주수행을 통한 과제 해결 능력 및 성취경험과 대리경험 ▪ 언어적 설득을 통한 만족감
	8	양 손 연 주	· IV도 화성	· CM의 I도 활용 곡 연주 · CM의 V도 활용 곡 연주 · CM의 기존 곡에 화성 넣기 (I, IV, V도 활용) - 솔로/ 듀오 연주	▪ 완성도 높은 연주를 통한 성취경험 및 자신감 ▪ 난이도 있는 연주수행을 통한 과제 해결 능력 및 성취경험과 대리경험 ▪ 언어적 설득을 통한 만족감
			9	창 작 곡	· 단 선율 창작 (공동)
	10	· 창작곡 및 기존 곡 연주			· 공동창작한 곡 연주 · CM의 기존 곡 - 솔로 연주 발표

Ⅲ. 연구 결과

1. 척도검사 결과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실시한 자기효능감 척도 검사점수 결과를 SPSS 16.0 통계 프로그램의 Wilcoxon 비모수 검정으로 분석하여 $p < .05$ 에서 통계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5명의 자기효능감 척도 사전·사후 검사점수 결과와 비교검정은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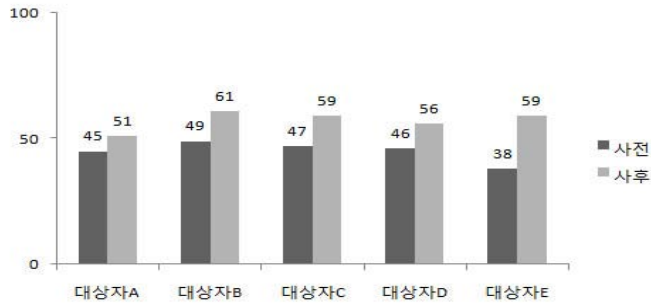
<표 4> 자기효능감 척도 사전·사후 검사점수 결과

	사전	사후	<i>M</i>		<i>SD</i>		<i>z</i>	<i>p</i>
			사전	사후	사전	사후		
A	45	51						
B	49	61						
C	47	59	45	57.2	4.18	3.90	-2.032	.042*
D	46	56						
E	38	59						

$p < .05$

척도 문항은 총 17문항으로 개인별 점수는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 사이에 분포한다.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척도 사전 검사점수에서는 대상자 B가 가장 높은 49점을 기록하였고, 대상자 A가 45점, 대상자 C가 47점, 대상자 D가 46점, 대상자 E가 가장 낮은 점수 38점을 기록하였다. 대상자들의 이러한 사전 검사점수는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 중재 이후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대상자 E는 대상자들 중 가장 큰 폭인 21점 상승하여 59점을 기록하였고, 대상자 A는 6점 상승하여 51점을 기록해 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적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그림 1> 참조). 위와 같이 본 척도의 사전·사후 검사점수 변화의 유의성을 비모수 검정인 Wilcoxon부호 검정 방법(Wilcoxon Signed Rank)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냈다.



〈그림 1〉 대상자 별 자기효능감 척도 사전·사후 검사점수 결과

2. 질적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이 매 회기 세션 내에서 보였던 언어적·행동적 반응과 대상자들이 매 회기 제출한 프로그램 참여 보고서를 연구자가 규명한 조작적 정의 즉, 성취경험, 자신감, 문제해결 능력, 만족감 총 네 가지 요인에 따라 내용 분석하였다. 또한 집단 내에서 일어난 역동이 각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각 대상자들이 집단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지지해 주었던 언어들에 대상자별로 내용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회기가 지날수록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네 가지 범주들 즉, 성취 경험, 문제해결 능력, 만족감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 A는 세션 초기에서 중기 중반부까지는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네 가지 범주들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나, 중기 중반부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와 같은 변화가 다소 주춤하였다. 대상자 A는 1회기에서 5회기까지의 세션 초기와 중기 단계에서 공동 창작 활동을 하거나 대상자들 앞에서 연주할 때에 자발적인 참여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향상되는 연주 실력에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대상자 A는 이를 통해 얻은 자신감으로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자신의 학습 능력이 뛰어나며, 잘하고 있다고 여겼었다. 그러나 대상자 A는 6회기 이후 왼손 화성 연주로 인해 곡의 난이도가 높아지자 연주 도중에 실수를 빈번히 하게 되었는데, 다른 대상자들의 연주 실력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이에 대상자 A는 더 난이도 높은 과제에 도전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성공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선호하며, 그 수준에 머물러 완성도를 높이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때 주로 연주한 곡은 ‘곰 세 마리’였다. 대상자 A는 다른 대상자

들과 같이 연주 과제 수행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범주의 내용들을 경험하긴 하였으나, 실패가 예상되는 연주 과제 수준에는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과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상자 B는 대상자들 중 사전 검사 점수가 가장 높은 대상자였다. 어렸을 적 잠시 피아노를 배웠던 덕분인지 세션 초기에서 중기 중반부의 선율 연주까지 음악적 과제 수행이나 피아노 연주에 대해 불안함을 보이지 않았고, 성취감과 자신감도 언어적·행동적 측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6회기 이후 왼손 화성 연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대상자 B는 다른 대상자들의 연주를 통한 대리경험을 기반으로 삼고, 실수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연주 수행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대상자 B는 세션 후기에 와서 지속적인 노력 끝에 모든 과제 곡을 완주할 뿐만 아니라 완성도 높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였고,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네 가지 범주들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대상자 B에게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집단의 역동성과 선의의 경쟁 구도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 B는 특히 대상자 C에 대하여 선의의 경쟁심을 갖고 있었는데,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대상자 C의 연주 수행 모습이 대상자 B에게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과 의지를 갖도록 도와준 자극제 역할을 하였었기 때문이다.

대상자 C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언어적 반응이 가장 많았던 대상자로, 대상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사전 검사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 B의 프로그램 참여 보고서에서 ‘집단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은 대상자 C’라고도 하였듯이 대상자들 중 가장 나이가 어리지만, 집단의 리더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대상자 C는 오리엔테이션 때 자신과 같이 음악을 배워본 적도 없고, 재미도 전혀 모르는 사람도 피아노 연주가 가능하냐고 물으며 자기를 비하시키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러나 세션 초기에 주어진 창작활동을 성공시키자 만족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이더니 회기가 거듭될수록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네 가지 범주들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상자 C는 다른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6회기의 왼손 화성 연주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었는데, 이에 대해서 자신의 작은 ‘손’ 때문이라며 집단 내에서 자신이 가장 연주를 못했다고 속상해했다. 집단 대상자들은 이처럼 대상자 C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발언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언어적 설득을 해주었다. 이는 대상자 C로 하여금 연주 도중에 포기하거나 난이도가 낮은 곡으로 전향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며 끈기 있게 완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참여 보고서를

통해 나타났다. 대상자 B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과제 곡들을 성공적으로 연주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대상자 C는 스스로에 대해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상자 D는 대상자들 중에서 네 번째로 사전 검사 점수가 높았던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나 세션 초기 때 말 수도 별로 없고, 얼굴빛이 어두우며, 다른 생각에 잠겨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상자 D는 전반적으로 대상자들 중 가장 피아노 연주 소리가 작았고, 팀별 연주에서는 아예 소리가 묻히는 경우도 많았다. 프로그램 활동 참여에서는 개별 과제 수행보다 팀별 또는 공동 과제 수행을 더 선호하였으며, 스스로도 공동 과제 수행을 할 때 더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대상자 D는 치료사의 피드백에 다른 대상자들 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여 치료사의 언어적 강화에 따라 수행 태도에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이 있는 대상자 D는 세션 초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주어진 팀별 또는 공동 과제 및 연주 수행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나갔고, 중후반부터 치료사와 대상자들의 언어적 강화 속에 서서히 개별 연주 수행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상자 D는 자신의 연주를 다른 대상들과 함께 공유하며 반복적으로 격려와 칭찬을 경험하자 자신감과 만족감을 표하기 시작하였는데 얼굴빛도 세션 초기에 비해 많이 밝아지고, 웃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금까지 배웠던 곡들 중 자신 있는 곡을 발표 연주하였는데, 이전보다 훨씬 큰 음량으로 자신감 있게 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대상자 D에게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난 데에는 공동 과제와 개인 과제가 병행된 프로그램 구성과 대상자 및 치료사와의 긍정적인 언어적 설득이 큰 역할을 해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상자 E는 대상자들 중에서 사전 검사 점수가 가장 낮았던 대상자임과 동시에 사전·사후 점수 변화가 가장 컸던 대상자이기도 하였다. 대상자 E는 세션 초기에 표정언어와 몸짓 언어 등 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였고, 말 수도 매우 적어 목소리를 들어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또한 과제 수행 속도나 이해 속도가 다른 대상자들에 비해 현저히 느렸고, 피아노 건반 한 음을 누를 때마다 손을 심하게 떨어 마음을 진정시켜가며 연주를 해나가야만 했었다. 이에 따라 대상자 E는 자발적 참여 및 적극적 참여보다는 주로 다른 대상자들의 도움을 받는 수동적 참여가 많았고, 각 대상자마다 동일하게 연주 시간을 분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E의 연주 시간은 다소 길어지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많이 일어났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보고서에서는 자신의 연주 수행에 대한 비판보다는 음악을 접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호감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대상자 E는 세션 전반에 걸쳐 수행 속도는 느리지만 과제 곡 연주에 흥미를 갖고, 다른 대상자들 보다 더 연습을 하고 세션에 임해 진도를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와 같이 끈기 있는 노력 끝에 대상자 E는 주어진 모든 과제 곡들을 완주하고, 완성도 높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대상자 E가 선호곡이라고 했던 ‘아리랑’은 다른 대상자들 모두 어려워서 잠시 회피하려는 곡 이었는데, 대상자 E는 꾸준한 노력으로 대상자들 중 가장 먼저 완성도 높은 연주로 완주를 하여 다른 대상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었다. 대상자 E는 프로그램을 종결하며 자신이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연주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다는 데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였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주 1회 100분씩, 10주 동안 총 10회기의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사후 척도 검사 결과, 유의도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어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악기 연주 활동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연구들(고민정, 2008; 구새롬, 2007; 김선미, 2004; 양지은, 2007; 주혜윤, 2009)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프로그램 중기에서 일어났던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네 가지 범주에서의 변화들이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션 비디오를 통해 수집한 대상자들의 언어적·행동적 반응과 대상자들이 매 회기 제출한 프로그램 참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세션 중기에서부터 시작된 난이도에 따른 과제 곡 구성과 이에 따른 연주 수행이 대상자들의 자기 평가 및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 변화에 가장 두드러지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악기 연주 활동을 할 때에 하나의 악곡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가게 해주며, 자신감과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

구(정현주, 2002)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셋째, 프로그램 내에서 이루어졌던 집단의 역동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변화에 촉진제가 되어주었다. 세션 내에서 집단 원들 상호 간에 지지해준 언어를 살펴본 결과, 다른 대상자들과 자신의 연주를 공유함으로써 연주 수행을 통한 성취경험 및 만족감이 더 높아졌으며, 비슷한 입장에 있는 대상자들로부터 받는 지지와 격려는 긍정적인 언어적 설득이 되어 긴장 및 불안을 초래하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해 주고, 안정감 있게 과제 수행하도록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악기 연주 활동에서의 역동성이 대상자들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선행연구들(구새롬, 2007; 양지은, 2007)의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고, 자기효능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료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자의 가설을 뒷받침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적인 중재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자기효능감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취경험과 자신감, 문제해결 능력,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 피아노 연주 활동 프로그램에서의 피아노 연주 경험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스스로에게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도전하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주체자임을 다시금 인식시켜줄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프로그램 과정 내에서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새로운 과제 상황에서 도전하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었음을 질적 연구 결과와 양적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이 음악적 환경 내에서의 경험을 통해 증진된 긍정적 요인들이 음악 외적 환경에도 전이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악치료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돕는 데에 효과적인 중재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음악은 출신국가가 다른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면서도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이들에게 적절한 매개체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거주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 지역이었던 국제결혼 이주여성들로 지역의 범위를 한정시켰던 사례연구였기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는 한

국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이 없는 대상자들이 참여하였으므로 본 연구 방법을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 대상자들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이며 한국어 능력 수준이 중급 이상인 자들로 통역 없이도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자발적으로 피아노라는 악기를 선호하여 프로그램에 지원한 것이므로 모든 대상자들에게 피아노가 치료적으로 적합한 악기라고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과제 곡들은 참여 대상자들의 연주 수준 및 곡 선호도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과제 곡을 적용시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양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인 자기효능감 척도는 번역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국어 척도 그대로를 사용한 반면 질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된 프로그램 참여보고서는 각 대상자들의 모국어로 작성한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기에 본의 아니게 위와 같은 과정에서 오역 및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대상자들이 피아노 연주 활동을 자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수단, 타 민족에 대한 사회적 시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수단, 정신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도 여긴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아노 연주 활동과 관련된 후속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을 다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음악이 효율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줄 수 있으므로 음악을 매개체로 사용한 다양한 후속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8). 우울성향 여대생의 자기효능감 증진에 대한 즉흥연주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새롬 (2007). 우울성향 여중생의 블루스 음악형식을 활용한 자기효능감 증진 연주 활동. **음악치료교육연구**, 4(2), 1-17.
- 권기택, 김성남 (1990). **피아노 학습과 지도법**.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김상임 (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자료집**, 17-48.
- 김선미 (2004). 가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활동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 김이선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젠더 리뷰**, 2, 110-112.
- 김재우 (2005).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느끼는 차별과 대처방식이 문화적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련 (2002). 중국 피아노 음악에 관한 역사적 고찰. 목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임순 (2008). 외국인 결혼 이주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비영리연구**, 7(1), 97-135.
- 문경희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계기로 살펴보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와 한국의 다문화 현상, **21세기 정치학회보**, 16(3), 67-92.
- 민은기 (2000). **음악과 페미니즘**. 서울: 음악세계.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4), 395-432.
- 서우선 (2007). 피아노와 한국 여성의 정체성. **여성학 연구**, 17(1), 133-155.
- 양옥경, 김연수, 이방현 (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사회적지원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도시연구**, 8(2), 229-251.
- 양지은 (2007). 그룹음악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치료교육연구**, 4(1), 1-20.
- 장온정 (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기선, 한지은 (2009). 국제결혼 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정현주 (2005). **음악치료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주혜윤 (2009).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즉흥연주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차옥승 (2008). 국제혼인 이주여성 피해실태의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담론201**, **11**(2), 139-169.
- 최병철 (2006). **음악치료학** 제 2판. 서울: 학지사.
- 최운선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141-181.
- 통계청 (2010). 2009년 혼인통계 결과 2010년 3월 24일 보도자료. 2010년 4월 13일 인용, <http://www.kostat.go.kr>
- 하 멩 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행정안전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년 8월 5일 보도자료. 2010년 4월 13일 인용, <http://www.mapas.go.kr>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laking, J. (1995). *Music, Culture, & Experience: Selected Paper of John Blaking*. Reginald Byron(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ssity, M. T. (1981). The influence of socially valued skills in peer acceptance in a music therapy group. *Journal of Music Therapy*, *18*, 148-154.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Kivland, M. J. (1986). The use of music to increase self- esteem of in a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 *Journal of Music Therapy*, *23*, 25-29.
- Lent, R. W., Brown, S. T. & Hackett, G. (1994). Monograph: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Moulden, J. (2007). *We are the New Radicals*. New York: McGraw-Hill.
- Neher, A. (1991). Maslow's theory of motivation: A critiqu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3*, 205-211.

- Wood, R. & Bandura, A. (1989).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07-415.
- Zelazny, C. M. (2001). Therapeutic instrumental music playing in hand rehabilitation for older adults with osteoarthritis: Four case studies. *Journal of Music Therapy*, 38, 97-113.

- 게재신청일: 2010. 9. 27.
- 수정투고일: 2010. 10. 1.
- 게재확정일: 2010. 11. 5.